

이미 복잡해진 세상과 인간에 대한 통찰

최성각 · 한창훈 · 송경아의 작품집을 읽고

이동하

시립대 교수 · 문학평론가

최근에 출간된 많은 창작집들 가운데 《부용산》, 《가던 새 본다》, 《엘리베이터》 세 권을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세 권을 나란히 놓고 보니 《부용산》은 40대의 작가에 의해, 《가던 새 본다》는 30대의 작가에 의해,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20대의 작가에 의해 씌어졌다는 사실이 맨먼저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단 세권의 창작집을 근거로 해서 거창한 세대론을 펴는 것은 위험한 일일 터이다. 그보다는 작가 나름의 개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개별적인 점검 및 평가로 그치는 편이 현명하겠다.

한 시대의 고뇌와 상처 반영

최성각의 《부용산》에서 무엇보다 먼저 주목을 끄는 것은 그가 1980년대 말에 발표했던 두편의 무게 있는 작품 〈약사여래는 오지 않는다〉와 〈축제의 밤〉이다. 이 두 작품은 모두 발표 당시에 상당한 주목을 모은 평판작들이었거니와,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다시 읽어보아도 별반 낡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물론 이 작품들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작가의 인간관과 세계관은 지나치게 단순한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나오서는 부분적으로밖에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터이지만, 그 점에 관한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들을 서슴없이 한 시대의 중요한 문학적 성과로 추천하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이 작품들 속에 들어 있다. 그 매력은 이 작품들이 한 시대의 고뇌와 상처를 그 나름의 방식으로 절실하게 반영하면서 그것을 탁월한 기법의 힘으로 감싸 올린 데에서 연유한다.

그런데 1980년대 말에 씌어진 두편 속에 간직되어 있었던 그와 같은 매력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 씌어진 다른 두편, 즉 〈부용산〉과 〈내 친구는 어디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기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1990년대에 와서는 이미 세상의 문제들이 1980년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복잡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여전히 〈축제의 밤〉 시대의 단순한 인간관 및 세계관으로 그 문제들과 맞서고자 하였기 때문에 초래된 필연적인 결과로 보인다.

그러면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4편의 엽편소설에 대해서는 어떤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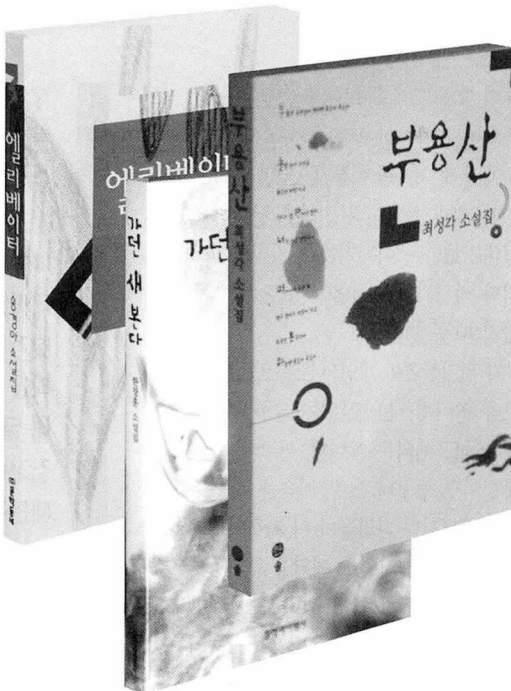
최성각은 이전 작품에서의 탁월한 기법의 매력이 보이질 않고, 한창훈은 토속적 삶의 실감이 뛰어남에도 잘 만들어진 스케치북 그 이상은 아니며, 송경아의 인간과 세상에 대한 통찰의 깊이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가를 할 수 있을까? 엽편소설이라는 장르 자체는 작가가 다루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뛰어난 예술적 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 책에 실려 있는 엽편소설들 가운데 다수는 엽편소설이라는 장르의 예술적 매력을 살리는 데 주력하기 보다는 세상사에 대한 비판의식을 표출하기 위해 편의상 엽편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한 데다가 그 비판의식이라는 것도 지극히 소박한 상식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겨 준다.

토속적인 삶의 실감

한창훈의 《가던 새 본다》에 수록된 작품들을 일별할 때 무엇보다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토속적인 삶의 실감이다. 물론 다소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작품이 요즘 젊은 세대의 작가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토속적 삶의 실감을 강렬하게 전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 삶은 가난과 소외에 시달리는 삶이며, 그러면서도 야성적인 생명력을 잃지 않는 삶이며, 의문스러운 웃음으로 시련을 견디어내는 삶이다. 이러한 삶의 실감을 능란한 문체에 실어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창훈은 이 문구라든가 한승원과 같은 작가의 계보를 충실히 잇고 있는 셈이다.

이 책에 수록된 작품들 가운데 몇몇은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세련된 수준을 보여준다. 특히 〈송



어)가 그렇다. 〈송어〉 이외에도 《가던 새 본다》에 실린 작품들은 대체로 고른 수준을 보여주는 셈이지만, 이 창작집이 이룩한 경지가 완전히 만족스러운 것이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창작집은 잘 만들어진 스케치북이라 할 수 있다. 스케치북도 좋은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가 문학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스케치북 이상의 그 무엇이다. 아직 출발점에서 멀리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이 작가가 앞으로의 작업에서는 스케치북 이상의 그 무엇을 훌륭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환상문학의 독특한 세계

송경아가 이전에 낸 두권의 창작집에서도 그랬지만, 이번의 창작집 《엘리베이터》에서도 대번에 돋보이는 것이 환상문학이라고나 해야 어울릴 것 같은 그의 독특한 창작방법이다. 그가 쓴 대부분의 작품들에서 그는 기법상의 리얼리즘을 조금도 존중해 주지 않고, 현실과 초현실이 제멋대로 뒤엉키며 빚어내는 환상의 공간으로 비약한다. 이것은 일찍부터 컴퓨터와 비디오를 친숙하게 접하며 자라온 세대의 감수성에 잘 어울리는 창작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설명만으로 그러한 창작태도가 전부 해명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따지고 보면 고대나 중세 야말로 인류문학사상 환상문학의 최전성기를 구현한 시대가 아니었던가. 그리고 20세

기에 있어서도 환상문학의 가장 높은 경지를 보여준 보르헤스 같은 사람이 어디 컴퓨터나 비디오를 친숙하게 접했기 때문에 그런 작품세계를 창조한 것이던가.

아무려나, 송경아가 보여주고 있는 환상문학의 경지는, 한국의 근대 소설문학 속에서 그동안 지극히 빈약하게 밖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며, 그런 만큼 송경아의 소설은 한국 소설문학의 영토를 크게 넓혀 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물론 《엘리베이터》에 수록된 작품들 가운데에는 〈이학기〉처럼 전통적인 리얼리즘의 방법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작품도 있지만 그의 그다운 진면목은 역시 환상문학의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처럼 기법적인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송경아의 작품들은 그 속에 담겨 있는 인간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통찰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물음 앞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긍정적인 답을 내놓기 어렵다. 물론 소박한 흑백논리나 순진한 이상주의의 단계를 이미 오래 전에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 데 인색할 필요를 느끼지 않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도달한 경지가 어디인가를 따져 보면 아무래도 공허한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창작집의 표제적인 〈엘리베이터〉만 보더라도 거기에 담겨 있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통찰의 깊이는 아직 〈깊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이 작가의 젊은 나이를 감안하면 지금 시점에서 비판적인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은 지나치게 조급한 처사일 터이다. 앞날을 기대하며 계속 그의 행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

- 《부용산》 솔/A5신/322면/8000원
- 《가던 새 본다》 창작과비평사/A5신/276면/7500원
- 《엘리베이터》 문학동네/A5신/286면/6500원